

94. 자동차 제조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성별 남 **나이** 44세 **직종** 자동차 제조업 **업무관련성** 높음

1. 개요: 근로자 남OO은 (주)OO 자동차에 1985년 7월에 입사하여 1997년 7월 OO공장 에서 근무 하던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2. 작업내용 및 환경: 근로자 남OO은 1985년 이래 2000년 11월까지 OO자동차 OO공장 프레스1부, OO공장 의장부 및 엔진부를 거쳐 조립업무를 수행했다. 2000년 1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OO엔진부 소재생산과에서 주입, 용해 및 도형공정 작업을 수행했고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C/Block 연마작업, Core 사상작업, 주입공정 금형청소 및 도형작업 을 수행했다. 고반복작업이며, 작업자세에서는 C/BLOCK과 Core작업시 작업물의 폭과 길이가 길고 무게가 무거워 팔, 어깨의 외전된 상태의 작업과 어깨 높이의 팔꿈치를 펴거나 비트는 작업 등 불안정한 작업으로서 팔과 어깨에 지속적인 부하를 미칠 수 있으며, C/Block 사상작업 등에서는 망치 무게(0.5 kg)가 적어 순간적인 충격 힘은 아주 크지 않으나 1일 평균 5,000-1만회의 타격회수를 보였다..연마, 사상, 금형청소 및 도형작업에 대해 관찰적 인간공학적 평가도구인 RULA를 적용한 결과, 연마작업의 Work Cycle에서 7점으로 조사와 개선이 즉시 필요한 수준을 보였다.

3. 의학적 소견: 근골격계의 통증은 2004년 11월경에 양쪽 무릎과 주관절의 통증으로 C병원에서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과 양측 슬개하 점액낭염 의심 진단하에 근골격계 검진을 의뢰하였으나 기각되어 통증을 참으면서 작업하다 2005년 6월부터 우측 팔꿈치에 쏘시는 증상이 점점 심해져 7월부터 사내보건센터를 이용하여 물리치료를 받아오다 9월 중순경부터는 작업하기가 어려워 내원한 푸른정형외과에서 우 주관절 염좌, 우 완관절 염좌, 우 주관절 외상과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운동은 4년전부터 볼링을 1달에 1-2회 정도로 약 3 게임/회를 하며, 사내 볼링동아리회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우측 팔 통증이 발생한 2005년 8월 이후에는 볼링을 하지 않고 있다.

4. 결론: 근로자 남OO은,

- ①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테니스 주관절)으로 진단받아 치료받았으며,
- ② 주관절에 영향을 미칠만한 스포츠(볼링) 활동을 하였으나
- ③ 소재생산과의 주 작업인 C/BLOCK과 Core 공정의 연마, 사상, 망치작업은 고빈도의 반복작업, 부적합한 자세 및 힘을 요구하여 팔꿈치와 손목 등 상지에 영향을 미치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서 높은 위험도를 보여

근로자 남OO의 우측 주관절의 외상과염은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